

오늘의 주요 언론보도

- 2024년 1월 11일 -



주요 기사내용		해당부서	보도매체
○	적색종 용과 연구결과 공유-8면(24.1.1.)	감귤아열대연구과	한국영농신문
○	2023 제주감귤박람회 ‘경제 파급효과 155억 원’ -19면(24.1.5.)	제주감귤박람회	원예산업신문
○	‘유채나물’ 주요 병해충은 노균병 등 6종-3면(24.1.8.)	친환경연구과	농업인신문
○	제주형 스마트 제어 시스템 ‘제빛나’ 구축-2면(24.1.8.)	원예경영연구과	농업인신문
○	4월까지 농기계 임대 추진-2면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제주일보
○	[기고] 농업용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하세요 -14면(한경수)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뉴제주일보
○	[기고] 농업용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하세요 -15면(한경수)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제주신문
○	2024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하세요-9면	기술지원조정과	제주매일
○	2024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하세요-6면	기술지원조정과	제주신문
○	하귀농협 레드향 싱가포르 첫 수출… “농업인 소득 제고 최선” -6면	-	뉴제주일보
○	가격 고공행진 감귤, 경쟁력 높이려면-2면	-	제주신문

(한국영농신문: 2024년 1월 1일)

○ 적색종 용과 연구결과 공유-8면

적색종 '용과' 연구결과 공유

제주농기원, 재배 매뉴얼 배부
안정 착과·출하관리요령 등 담아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은 제주지역 실정에 알맞은 적색종 용과 재배 매뉴얼 책자를 제작해 배부한다고 밝혔다. 제주농업기술원은 적색종 용과를 신소득 작물로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적색종 용과의 안정 생산, 과실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를 추진했으며, 농업인·함덕농협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해 생육시기별 현장 컨설팅을 추진했다.

재배 매뉴얼에는 3년 간의 연구 결과와 현장 컨설팅 결과, 시기별 과실품질 조사 결과를 수록했다. 26일 함덕농협에서 개최되는 '적색종 용과 정예소득단지 재배 농가 연합회'에서 현장 배부할 예정이며, 농업기술원 누리집에서도 누구나 볼 수 있다.

제주농업기술원 이리나 농업연구사는 "기후 변화와 소비패턴 변화에 따라 새로운 아열대과수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만큼 현장 애로사항 해결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1.
한국영농신문 8면

(원예산업신문: 2024년 1월 5일)

○ 2023 제주감귤박람회 '경제 파급효과 155억 원' -19면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개최된 '2023 제주감귤박람회'가 155억 원의 직접적인 경제효과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2023 제주감귤박람회 '경제 파급효과 155억 원'

매출 실적·만족도·경제 파급효과 등 성과목표 초과 달성

'2023 제주감귤박람회'가 155억 원의 직접적인 경제효과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주민에 의한 경제효과 38억 원, 도외 관광객에 의한 경제효과 117억 원으로 관광객 유입이 감귤박람회 성공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사)제주국제감귤박람회조직위원회(위원장 고병기)는 지난해 27일 서귀포농업기술센터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2023 제주감귤박람회 개최 결과 및 성과평가 용역 결과를 보고했다.

경희대학교 호텔관광대학 이규민 교수팀이 수행한 성과평가 용역 결과에 따르면 올해 제주감귤박람회의 총 방문객은 6만 2,344명으로 전년 대비 25.2% 증가했다. 이중 제주도민은 59%, 외지인은 41%로 집계됐으며 방문객 1인당 평균 지출액은 21만 7,616원으로 분석됐다.

홈페이지 및 SNS 등 온라인 참가자도 130만 명을 넘어섰다.

농기계, 산업전시 등에 참여한 160여개 기업의 계약 및 매출액도 33억 원에 이르러 전년 실적의 2배 이상을 달성했다.

/조형익 cho3075@daum.net
1.5.
원예산업신문 19면

(농업인신문: 2024년 1월 8일)

○ ‘유채나물’ 주요 병해충은 노균병 등 6종-3면

‘유채나물’ 주요 병해충은 노균병 등 6종

병해충별 발생 특성 따른 올바른 방제 필요 제주농기원, 생육 시기별 발생 조사 결과 밝혀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도내 유채나물 재배지를 대상으로 생육 시기별 병해충 발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요 병해충은 노균병, 배추좀나방, 도둑나방, 완두굴파리, 무데두리진딧물 등 6종이며, 주 발생 시기는 파종기 이후 10~11월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잎에 노랗게 병반이 형성되고 잎 뒷면에 흰 포자가 형성되는 노균병은 밀식 재배하

거나 저온 다습한 조건이 지속될 경우 피해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노균병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10a당 6~7kg 정도의 적정 파종량을 준수하고 병 발생 초기에 등록 약제를 살포해야 한다.

아울러 농약 사용 실태 조사와 잔류량 모니터링 결과, 유채나물에는 등록된 4개 품목의 농약을 사용하고 있으며 농약 잔류량은

허용기준 미만으로, 안전한 먹거리 생산이 이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농기원에 따르면 현재 등록 약제는 노균병 4품목, 나방류 28품목, 굴파리류 6품목, 진딧물류 21품목이며, 상세한 정보는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 시스템(<https://psis.r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주농기원 이정민 농업연구사는 “유채나물의 도내 재배면적은 2022년 기준 290ha로, 주로 겨울철 일채소로 생산·소비되며 병해충 방제 시 농약이 잎에 직접 닿기 때문에 안전성이 우려되는 작물”이라며 “안전한 유채나물 생산을 위해서는 병해충 발생 종류와 시기를 파악해 적기 방제하는 것이 우선이다. 무엇보다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1.8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농업인신문 3

(농업인신문: 2024년 1월 8일)

○ 제주형 스마트 제어 시스템 ‘제빛나’ 구축-2면

제주형 스마트 제어 시스템 ‘제빛나’ 구축

농장 환경 모니터 편이성 등 향상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은 제주형 스마트 제어 및 데이터 통합 관리시스템 ‘제빛나’를 구축하고 스마트 농업 활성화에 나선다.

제빛나는 최근 기후변화와 농촌인구의 감소, 고령화 등으로 스마트농업이 미래농업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도내 스마트팜 시범농가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스마트팜 시스템은 초기 설치비가 많이 투입되고 사후관리가 원활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농업기술원에서는 2020년부터 저비용 스마트팜 구축을 위한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제주형 스마트 제어 및 데이터 통합 관리시스템 ‘제빛나’ 고도화 용

역 완료보고 및 시연회를 지난달에 개최했다. 시연회에서는 시스템을 고도화하며 ▲농장 환경 모니터링 및 장치 제어 편이성이 향상됐고 ▲클라우드 기반 빅데이터 관리·분석 기능을 도입해 향후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2세대 스마트농업 개발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을 받았다.

제빛나는 올해부터 도내 시설 만감류 농가 4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농업 빅데이터 생육관리모델 개발 실증포장에서도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추진 후 시스템이 안정적이고 영농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면 일반농가에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1.8.

성낙중 khan101@농업인신문 2

(제주일보: 2024년 1월 11일)

○ 4월까지 농기계 임대 추진-2면

4월까지 농기계 임대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귀포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 편의 증진을 위해 다음 달부터 오는 4월까지 남원농협과 함께 농기계 임대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노지감귤 수확이 마무리되고, 감귤원 간벌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2~4월은 파쇄기 임대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다.

이에 따라 서귀포농업기술센터와 남원농협은 파쇄기 임대 수요를 충족하고, 농업인 편의를 높이기 위해 농기계 임대 사업 접근성을 개선하는 협업을 추진한다.

서귀포농업기술센터는 또한 남원농협 농기계 수리센터에 소형 파쇄기 10대를 비치하고, 농기계 안전교육과 농기계 순회 점검 등을 ^{1.11.}시행한다.

제주일보 2

(뉴제주일보: 2024년 1월 11일)

○ [기고] 농업용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하세요-14면

농업용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하세요

최근 탄소중립과 환경 보전을 위한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 요구가 점점 커지며 서귀포농업기술센터에서도 농업 미생물 공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미생물 배양시설이 없었던 2022년까지는 제주와 동부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한 농업 미생물을 매년 50t 내외 수령해 관내 농업인에게 공급했지만 수요 대비 공급량이 항상 부족했다. 이에 2022년 12월 농업미생물배양실 신축을 완료하고 지난해부터는 서귀포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생산한 미생물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4~11월 651농가에 미생물 73.9t을 공급했다. 농가에 보급된 미생물은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 4종이며, 항상 고품질의 미생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품질 관리에 노력해 연중 미생물 비료 공정 규격 이상의 균 밀도를 유지하고 대장균, 살모넬라균 등의 유해균이 없는 안전한 미생물을 공급할 수



한경수

제주도농업기술원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있었다.

그 결과 지난해 미생물 활용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3% 이상이 미생물 공급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미생물

사용 시 토양개량, 작물 생육 촉진, 품질 향상 등의 효과를 체감한다고 답했다.

이런 농업인들의 호응과 호평에 힘입어 올해 서귀포농업기술센터는 미생물 공급량을 100t으로 늘릴 예정이다. 희망하는 농업인은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누리집을 참고해 구비서류를 갖추고 방문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다. 최근 2년 이내 농업 미생물 활용 교육을 이수해야 공급 대상으로 확정될 수 있으므로 2월에 진행 예정인 집합교육에 참여하거나 온라인 교육으로 수료하

1.11. 뉴제주일보 14

○ [기고] 농업용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하세요-15면

최근탄소중립과 환경 보전을 위한 농업의공익적기능 강화 요구가 점점 커지며우리 서귀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농업 미생물 공급사업을추진하고 있다.

수 있도록 품질 관리에 노력해 연중 미생물 비료 공정규격 이상의 균 밀도를 유지하고 대장균, 살모넬라균 등의 유해균이 없는 안전한 미생물을 공급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지난해 미생물 활용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3% 이상이 미생물 공급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미생물 사용 시 토양개량, 작물 생육 촉진, 품질 향상 등의 효과를 체감한다고 답했다.

이러한 농업인들의 호응과 호평에 힘입어, 올해 서귀포농업기술센터에서는 미생물 공급량을 100t으로 늘릴 예정이다. 희망하는 농업인은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누리집을 참고해 구비서류를 갖추고 방문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다. 최근 2년 이내 농업미생물 활용 교육을 이수해야 공급 대상으로 확정될 수 있으므로 오는 2월에 진행 예정인 집합교육에 참여하거나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주시민 15

- 5 -

(제주매일: 2024년 1월 11일)

○ 2024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하세요-9면

■ 2024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하세요

농업기술원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고 농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2024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농업인(단체) 및 법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이상고온 대응 시설채소 안정생산 시범 등 49개 사업
 - 센터별 사업 및 개소수가 상이하므로 상세 내역 확인 필요
- 신청기간: 2024. 1. 2. ~ 1. 31.(30일간)
- 신청방법
 - 방 문: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
 - 우 편: 원본 서류를 동봉해 우편 발송(접수마감일 소인 포함)
 - 이메일: 농업기술센터 대표 이메일 발송(현장심사일까지 원본서류 제출 필, 미 제출 시 현장심사 제외)

*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원 누리집(<https://agri.jeu.go.kr>) 참고

[문의]

제주농업기술센터 760-7711~3 서귀포농업기술센터 760-7811~3

동부농업기술센터 760-7611~3 서부농업기술센터 760-7911~3

1.11.
제주매일 9

(제주신문: 2024년 1월 11일)

○ 2024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하세요-6면

제출 필, 미 제출 시 현장심사 제외)

*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원 누리집(<https://agri.jeu.go.kr>) 참고

□ 문의 : 제주농업기술센터 760-7711~3

서귀포농업기술센터 760-7811~3

동부농업기술센터 760-7611~3

서부농업기술센터 760-7911~3 1.11. 제주신문 6

2024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하세요

농업기술원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고 농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2024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농업인(단체) 및 법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이상고온 대응 시설채소 안정생산 시범 등 49개 사업

○ 센터별 사업 및 개소수가 상이하므로 상세 내역 확인 필요

□ 신청기간: 2024. 1. 2. ~ 1. 31.(30일간)

□ 신청방법

○ 방 문: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

○ 우 편: 원본 서류를 동봉해 우편 발송(접수마감일 소인 포함)

○ 이메일: 농업기술센터 대표 이메일 발송(현장심사일까지 원본서류

(뉴제주일보: 2024년 1월 11일)

○ 하귀농협 레드향 싱가포르 첫 수출… “농업인 소득 제고 최선” -6면



지난 9일 하귀농협 경제사업장에서 레드향 싱가포르 수출 선적식이 진행되고 있다. <하귀농협 제공>

하귀농협 레드향 싱가포르 첫 수출…“농업인 소득 제고 최선”

하귀농협이 소득작목으로 육성하는 레드향이 첫 싱가포르 수출길에 올랐다.

하귀농협(조합장 강병진)은 지난 9일 하귀농협 경제사업장에서 레드향 싱가포르 수출 선적식을 진행했다.

이날 선적된 물량은 당도 13브릭스(Brix) 이상 고품질 레드향 3.5t이다. 하귀농협은 이날 첫 수출을 시작으로 올해 레드향 1,114.40t을 수출하며 베트남, 러시아, 뉴제주일보 6트(UAE) 등 해외 시장 개

척에 박차를 가한다.

강병진 조합장은 “최근 공급량 급증 등 수출 여건이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 하귀농협 레드향이 품질을 인정받아 싱가포르로 수출하게 돼 기쁘다”며 “우수한 상품 생산과 수출 관로를 다변화해 농업인 소득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제주신문: 2024년 1월 11일)

○ 가격 고공행진 감귤, 경쟁력 높이려면-2면

가격 고공행진 감귤, 경쟁력 높이려면

제주감귤 가격이 연일 고공행진하고 있다. 2023년산 노지감귤 5kg당 평균가격이 지난 9일 1만 4000원을 기록, 도매가격을 조사한 이래 최고가를 경신했다고 한다.

생산량이 적절하게 조절되고 우수한 품질과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무엇보다 겨울철 경쟁과일들의 고공행진이 더욱 주요한 것으로 보인다. 감귤의 최대 경쟁과일로 여겨지는 하우스딸기 가격이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폭등했고, 사과 역시 유난히 작황이 부진해 생산량이 줄어 소비자들이 구매를 꺼릴 정도로 가격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최고의 겨울 과일'로 평가받다가 경쟁과일들에 밀려났던 감귤이 비교적 부담없는 가격으로 대체과일로 자리잡은 것이다.

2023년산 감귤 가격의 호조세를 이어가려면 철저한 원인분석과 함께 **제주신문** 2면방안이 필요하다. 소

비자들이 감귤 경쟁 과일에 대한 가격 부담으로 감귤소비를 늘린 것은 언제든지 수요를 뺏길 수 있다. 국민들의 딸기에 대한 선호도가 식을 줄 모르고 우상향 하던 추세를 감안하면 딸기가격의 안정화는 언제든지 제주감귤에는 위협이 된다. 반사 수요라는 점을 냉정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다.

좋은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생산량 조절이 전체 농가에 득이 되고 있는 상황도 마찬가지다. 생산량 등락은 때때 달라지는 생산환경에 많은 부분 달라지지만, 감귤농가의 적극적인 생산량 조절 협력이 없이는 모두가 만족할 만한 감귤가격을 형성하기는 어렵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당도 과일생산이 시장경쟁력 상승으로 이어진 상황은 결국 고품질 감귤 생산만이 제주감귤이 나아갈 길이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 제주감귤의 지속가능성과 방향성이 여기에 있다.